

중국, 민간기업의 성장과 향후 발전 전망

I. 머리말

II. 민간기업의 발전 현황

III. 민간기업의 발전 특징과 발전 추세

IV. 민간기업의 발전 전망

I. 머리말

중국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간부문이 자생적으로 발달하도록 묵인 내지 허용하였으나, 이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은 허용치 않아 민간부문은 이렇다할 제도적 지원 없이 발달해왔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非公有制, 즉 사유제를 대표적 병폐로 간주하여 배제해야 할 대상이었으나,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시대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묵인 내지 허용하였다. 마침내 1992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그 동안의 國有經濟와 集體經濟만을 인정하는 公有制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비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제한에서 묵인 내지 허용으로 그리고 다시 장려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1991~97년 사이에 중 민간기업¹⁾의 숫자는 연평균 46%씩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의 고용도 연평균 41%씩 증가하였다. 또한 생산액도 연평균 71%씩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하였다²⁾. 민간부문은 국유부문의

1) 1988년 3월 제7기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개정헌법에서 私營經濟는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충으로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발전하여야 함을 명문화하기까지 통일된 명칭을 갖지 못하고 ‘專業大戶’, ‘個體大戶’, ‘雇工企業’, ‘新經濟聯合體’ 등으로 불리었음. 최근에 중국 언론이나 학계에서 민간기업을 통상 ‘私營企業’, ‘民營企業’ 등으로 혼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민간기업’으로 칭하고자 함.

2)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근거한 것임. 자료: <http://www.viewswire.com/> '05 oct 2000 - China economy: A growing, but fitful, private sector'. 뒤의 <표3>은 공업생산액의 비중만을 적시한 것이어서 민간부문의 전체 생산액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생산활동이 결여된 분야를 보완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일부를 떠맡아 왔다. 이렇게 되면서 민간부문이 국민경제의 보충적인 지위에서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지위가 전환되어 경제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자금 조달과 시장진입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연평균 46%의 고속 성장은 비록 인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최적 성장을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동안 민간부문의 발전은 많은 제약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먼저 민간부문의 발전을 시기별로 개관하고, 다음으로 민간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향후 발전추세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그 발전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II. 민간기업의 발전 현황

1. 민간기업의 발전 과정

가. 실험적 태동기: 1978~83년³⁾

이 시기에 중국정부는 민간부문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문화대혁명(1966~76) 이후 국유부문의 생산 부족 분을 보충하는 수준으로 민간부문 생산을 묵인하였다. 그 당시 민간부문은 소위 말하는 거티후(個體戶: 종업원 5인 이하의 영업단위)로 소매업, 서비스업, 경공업과 농업 등의 국유부문이 커버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였다. 이 시기 농민들은 토지를 경작하는데 있어서 과거 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로워졌으며, 잉여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었다. 비록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발생된 이익은 個體戶를 설립하는데 투자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개혁은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 정치적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공산당의 이념적

3) 이 기간은 중국이 폐쇄적인 자력갱생 위주의 경제체제에서 대외개방을 처음으로 시도한 시기로 개혁을 농촌 위주로 실시하였음.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계급투쟁을 중지하며 '사상해방, 실사구시, 일치단결하여 앞으로 전진하자'는 구호 아래 국가 정책의 중점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개혁개방의 실시에 두기로 하였음. 이러한 방향하에 "농업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결정"(關於加快農業發展的決定(草案))을 제정하여 농업부문을 우선적으로 개혁하였고, 그 결과 농가 책임생산제가 시행되었음. 따라서 일부 지역, 일부 기업, 일부 근로자와 농민 등이 고생하여 얻은 결과로 소득이 증대되어 먼저 생활이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였음. 소위 말하는 '先富論'이 이 시기에 나온 것임.

교의를 수정하여 민간부문을 발전시킬 의도는 없었던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데 국한하여 민간부문을 이용함으로써 국유부문과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게다가 민간부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민간부문을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983년 시장 정돈이라는 명목으로 個體戶에 대

<표1> 민간기업과 관련한 법적 제도 정비 현황

	관련조치	비고
'81. 3.	“關於積極發展農村多種經營的報告”	다양한 경영방식을 통한 집단과 개인의 적극성 발휘
'81. 7.	“關於城鎮非農業個體經濟若干政策性規定”	個體경제성격과 범위 및 육성 방안
'84. 2.	“關於農村個體工商業的若干規定”	농촌 잉여 인력의 공장 個體 고용 최대 5명 허용
'87. 3.	제7기 인민대표대회 헌법수정: ‘私營經濟는 사회주의공유경제의 보충’	사영경제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발전
'87. 8.	“城鎮個體工商戶管理暫行條例”	
'88. 6.	“中華人民共和國私營企業暫行條例” “關於徵收私營企業投資者個人收入調節稅的規定”	민간기업 등록 실시 조세 징수근거 마련
'89. 9.	“關於大力加強城鄉個體工商戶和私營企業稅收徵管工作的決定”	
'92.10.	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 각종 소유제 경제 평등히 시장경제 참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채택
'93. 3.	제8기 인민대표대회 헌법수정: 사회주의 시장경제 명문화	
'97. 9.	공산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	
'98. 10.	공산당 제15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공유제 위주의 다양한 소유 경제 공동발전체제 장기간 견지	
'99. 1.	私營企業에 대해 최초로 대외무역권 부여	20개 기업 허용
'99. 8.	“個人獨資企業法” 제정	개인기업 설립('00. 1시행)

자료: 필자 작성

한 영업허가서 발급, 세제부과, 위생과 품질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다름 아닌 민간부문의 발전을 제한하기 위한 위장된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1979년 광둥성(廣東省)의 한 농민은 1600평의 양식장을 임대하여 양식업을 시작하였다. 다음 해에는 양식장 면적을 21,000평으로 확대하면서 1명의 임시근로자를 고용하여 그해 10,000 위안(6,500달러)의 순소득을 실현하였다. 1980년 안후이성(安徽省)의 한 농민은 과쯔(瓜子: 해바라기, 호박 등의 각종 씨앗을 볶아 담소할 때나 여행할 때에 즐겨 먹음)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4년 만인 1984년에 103명을 고용하였고, 그해 납세액만도 무려 30만 위안(10.7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중앙정부에서는 8명을 초과해서 고용하는 민간 경제단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이 때에 덩샤오핑(鄧小平)이 1982년에 제안하여 중앙 정치국의 토의를 거쳐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관망해보자’(看一看)는 방침을 정하였다. 그 뒤 1983년 중국정부는 ‘규정을 초과해서 고용하는 個體戶’(對於超過規定雇請多個幫工的)에 대해서는 三不政策을 시행하였다. 다름 아닌 ‘장려하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선전하지 않고, 조급하게 근절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84년 10월 덩샤오핑은 한 연설에서 ‘내 생각은 한 2년 두고 보자는 것이다. 個體戶들이 우리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군중들은 정부정책이 변했다고 할 것이고, 민심이 불안해질 것이다. 個體戶를 없애버리면 민심의 불안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경영하도록 하자, 두려울 게 뭐가 있나? 사회주의를 해치겠는가?’라고 했다.

어떻든 이 시기의 중국 민간부문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는 개혁이 농촌으로부터 시작됨으로 해서 농촌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농민들의 잉여자금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고, 농민은 이를 이용하여 가내공업 형태의 새로운 영업활동을 시작하면서 민간부문 발전의 태동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集體企業으로 활동기: 1984~92년⁴⁾

이 시기에는 민간부문이 어느 정도 발전하여 상당한 규모의 기업이 생겨났

4) 1984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2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개혁을 농업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을 수립하여 도시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로 하였음. 이 때에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임을 천명하여 시장경제로 전환을 위한 첫 걸음을 내 디었음.

다. 이는 8명 이상의 종업원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주로 국유기업의 일부 사업을 임대 경영하면서 규모가 커질 수 있었다.

1985년 3월부터 은행들은 국내경기 과열 등의 이유를 들어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기 시작하였고, 이 때부터 민간부문의 발전이 둔화되었다. 허베이성(河北省) 용넨셴(永年縣)의 조사 통계에 의하면, 1985년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가구(기업과 個體戶를 포함)가 1983년 대비 10배로 증가하였으나, 1987년에는 단지 0.5배 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비록 198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3기 전국 대표자 회의의 보고서에 ‘민간경제(私營經濟)는 공유제 경제의 필요하고 유익한 보충’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존재를 수용하였다. 다음 해 3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자 대회에서 통과된 수정 헌법에 ‘민간경제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발전하며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충’임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기업은 제한적이거나 비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였고, 같은 해 6월 이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잠정조례”(中華人民共和國私營企業暫行條例)가 공포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민간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국내 경제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아 민간부문의 발전이 다시 둔화 되었다. 1988년 8월 중국 정부는 그 동안의 개혁개방에서 나타난 중복 과잉투자, 무분별한 공장 증설, 총수요와 총 공급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은행에 압력을 행사하여 대출을 요구하거나 은행 대출 회수시기의 연장 또는 상환 지연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인민은행에 지시한 바 있다. 바로 뒤이어 9월에 개최된 공산당 제13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2년은 경제환경을 정비하고 경제질서를 정돈하는 治理整頓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여건변화로 자금조달 곤란 등의 문제에 봉착하여 민간부문의 발전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더욱이 1989년 9월에 민간부문에 대한 조세 징수를 강화(關於大力加強城鄉個體工商戶和私營企業稅收徵管工作的決定)하는 규정을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민간부문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탈세 등으로 적발된 민간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등 민간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켰다⁵⁾.

5) 1989년 중국정부는 지방에 하달한 문서(중앙 9호 문건)에서 민간기업가는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산둥성(山東省)의 한 민간기업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자산 규모가 600만 위안(127만 달러)인 도자기 공장을 集體企業으로 전환하고자 공산당원에게 입할 수 있었음. 또한, 1991년 중국정부는 한 문건(중앙 15호)에서 과거 1950년대 민간기업의 ‘이용, 제한, 개조’의 방침을 종결하며, 지금의 민간기업은 과거의 상공업자와는 다르고 더욱이 1950년대와 같은 사회주의 개조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였음.

1988년 전까지 민간기업들은 민간기업에 적용할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받아 個體戶로 남아 있거나, 지방정부에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고 集體企業으로 위장 전환하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민간기업에서 형식적으로 集體企業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민간 기업들은 이념적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민간기업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이 지방정부와 관계를 유지하며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았지만 여전히 폐업 위기에 직면해야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업허가서의 재발급, 공공부문의 계약과 관련한 지방정부 관리들의 변덕 등으로 생존여건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생존을 위해 관료와의 결탁은 더욱 긴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지역 보호주의와 부패가 성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후에 민간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사회주의적인 기업 형태인 集體企業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個體戶는 1988년 23.1백만 개에서 1989년에 19.4백만 개로, 민간기업은 1988년말 9.1만 개에서 1989년 8.8만 개로 감소하였다.

다. 민간기업의 발전기: 1993년 이후

이 시기는 민간부문에 대한 경제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부문이 재차 발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상품경제를 도입한지 8년 만인 1993년에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제도와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초 덩샤오핑은 중국 남부지방을 순시하는 중에 경제발전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3가지 도움되는 사항’(三個有利於)으로 향후 모든 경제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비 판단의 표준이 되었다. 이 세 가지는 ‘생산력 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국가 종합 국력의 증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이다.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이며 당시 최고 실권자인 덩샤오핑의 이러한 결심은 민간부문 발전에 결정적인 지원이 되었으며, 실제 이러한 영향으로 그 해 10월 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기로 하는 체제노선의 대전환을 맞게 되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각종 소유형태의 기업이 평등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도록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이들 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동 보고서는 강조하였다. 그리고 1997년 공산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라고 천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중국에서 민간부문의 법적 지위가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선변화와 부분적인 제도정비에 힘입어 1997년 말까지 중국에는 민간기업이 96.1만 개, 個體戶가 6,800만 개로 증가하였다. 이들의 약 80%는 중소도시 지방정부가 소유했던 기업들이 민영화된 것이다. 또한, 1998년 3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위장 소유한 집체기업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공식적인 인정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경영환경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個體戶들은 여전히 농촌에 기반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였고, 민간기업들은 지방정부 관리들의 보호와 종속하에 발전을 해왔다. 이는 한편으로 시장기능을 약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이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더욱 진력함으로써 생산효율 제고와 품질 향상은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오늘날 중국 경제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 하나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보다는 ‘관시’(關係: 인맥)를 통한 영업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IFC 조사에 의하면, 민간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친구나 가족을 통해 그들의 고객, 공급자 및 협력업체와 관련을 맺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규범과 거리가 먼 회계처리로 기업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기업의 규모 확대를 위한 은행 대출 확보나 외국자본 유치에 어렵게 함은 물론, 유능한 인적자원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과거부터 그러했듯이 국유부문이 경영하지 않은 분야를 균락을 이루듯이 틈을 지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지역적인 한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기업 소재지역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된 영업활동과 지역적 한계에다 민간기업 수의 증가로 말미암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⁶⁾.

2. 중국 민간기업의 개황

6) 저장성(浙江省)의 차아토우(橋頭)의 소도시에는 단추만 생산하는 소기업이 무려 750개에 달하여, 이 도시의 단추 생산기업들은 시정부 당국으로부터 상품생산과 관련한 독창성을 인정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됨. 商議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독창성(신상품의 디자인 등)을 적극 보호해주고 있음.

중국 민간기업을 전체적으로 개괄할 수 있는 통계상의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 법적, 제도적으로 그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데다가 정치적 안전을 위해 集體企業으로 위장한 경우까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기술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설문조사⁷⁾에 근거한다.

먼저 기업규모와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보면,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기업의 자산 규모는 10만~50만 위안(1.2만~6.0만 달러)이 가장 많은 45%를, 그 다음이 100만~1,000만 위안(12.1만~120.8만 달러)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업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4억 5,000만 위안(5,435만 달러)에 달했다. 종업원은 30인 이하가 55%로 자산규모와 비례하고 있으며, 30~100인이 그 다음으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IFC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 민간기업들이 기업 설립시 초기 자본의 90%를 자체 조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은 고작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670만 위안(81만 달러)이며, 업종별 평균매출액 상위는 농수산업, 부동산업, 제조업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익은 부동산업이 제일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평균 매출액 상위 업종에서 제조업은 제3위를 차지하고 있음도 <표3>의 민간기업이 중국 전체 공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제품은 주로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에 공급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인 49%를 점하고 있고, 일반시장에 출하되는 비중 또한 46%에 달한다.

기업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기업주의 교육수준은 전체 조사 대상의 73%가 중등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대학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20% 수준이다. 이들의 사회적 배경은 지방간부와 個體戶에서 기업주로 변신한 경우가 각각 31%와 30%로 나타나 이들이 민간기업의 주력군임을 알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중요 사항이든지 일반 사항이든지 기업주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중대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주 스스로 결정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기업 경영과 관련한 정보는 주로 언론, 제품 수요자로부터 취득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주들이 자신의 지위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절반 이상이 기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 다음으로 공산당에 입당하거나 전국 인민대표 등의 일원이 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연평균 6,116위안(740달러)의 임금을 지불하며,

7) 1997년 말과 1998년 초에 걸쳐서 '중국 민간기업 연구팀'이 전국 21개 省, 市, 自治區의 250개 도시에 소재 해 있는 민간기업 1,947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임.

이밖에 일부 기업들은 의료비 128위안(15달러), 양로 보험료 116위안(14달러)을 지불하고, 이외에도 조사대상 45%의 기업이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표2> 중국 민간기업의 현황

자산 규모 (만 위안, %)	10이하 7.6	10-50 45.0	50-100 17.5	100-1,000 25.6	1,000이상 4.3
종업원(명, %)	30이하 55.0	30-100 27.7	100-500 13.9	500-1,000 2.5	1,000이상 0.9
관리자 구성(%)	기업주 26.7	친척 16.8	동향 5.0	외부인사 44.2	기타 6.9
제품 수요처(%)	국유기업 30.0	민간기업 19.0	시장 45.8	수출 4.1	기타 1.1
연간 이익 규모(만 위안)	부동산업 152	농수산업 131	제조업 111	음식업 23	서비스업 10
기업주 학력(%)	초등이하 6.7	중학 31.4	고교 41.7	대학 19.5	대학원 0.7
기업주 배경(%)	지방간부 31.1	노동자 14.9	농민 15.2	個體戶 30.0	기타 8.8
의사결정: 중요사항(%)	기업주 55.3	관리자와 30.2	협의	이사회 13.9	기타 0.6
일반사항(%)	49.7	36.0		12.7	1.6
정보 취득(%)	수요자 24.0	언론 29.9	친지 17.0	시장조사 22.2	기타 6.9
신분과 지위 상승을 위해(%)	규모확대 56.8	입당 16.9	공익사업 16.3	광고선전 6.1	기타 3.9

주) 환율은 1달러당 8.28 위안 기준

자료: 北京經濟報, 1999. 2. 7자에 의거 작성

한편, 기업주들의 연평균 소득은 9.2만 위안(1.1만 달러)으로 기업 순이익의 22.7%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주의 연평균 수입은 11.0만 위안(1.3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III. 민간기업의 발전 특징과 발전 추세

1. 민간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앞에서 단계별로 민간부문의 발전과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경영활동 환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점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위장 집체기업⁸⁾으로 활동하는 점이다. 이는 법적 지
 <표3> 민간기업 발전추이

	'80	'85	'91	'93	'94	'95	'96	'97	'98
기업(만 개)	n.a	n.a	10.8	23.8	43.2	65.5	81.9	96.1	n.a
종업원수 (만 명)	81	450	760	1,116	1,557	2,045	2,329	2,669	3,232
공업생산액 비중(%)	0.1	1.9	4.8	8.0	10.1	12.9	15.5	17.9	17.1

자료: “中國統計年鑑” 각 연호와 Business China, September 25th 2000에 의거 작성

위가 확보되지 않은 1992년 이전에 주로 많이 발생하였다. 1981년 허베이성邯鄲市の 농민 펑련인(馮連印)은 街道辦事處(동사무소에 해당)와 합작으로 민간기업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동사무소는 단지 영업허가서만을 취득해 주기로 양자가 합의하였다. 따라서 동사무소는 단 한푼의 자금도 투자하지 않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뒤에 펑은 차입금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이익금 중에서 4.7만 위안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문제되어 사기와 공금횡령죄로 체포되었다. 그는 1984년 한단시 중급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공상행정관리국의 ‘당해 법인을 마땅히 민간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1987년에 펑을 무죄 석방하였다.

이와 같이 소유권(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產權(재산권)이라고 함) 관계가 불분명하여 경제 환경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위장 集體企業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인 보호를 받기 위함이다. 과거의 계급투쟁 과정에서 자본가 계급은 비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경험한 민간 기업인들로서는 안전한 정치적 피난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9년 하반기에 민간 기업인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일부 민간 기업인들

8) 위장 集體企業 현상은 민간기업의 발전과정 속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민간기업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공부문과 관계를 유지하여 해당 공공부문에 배당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민간기업임을 위장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였던 것임. 때문에 집체기업으로 위장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것을 ‘붉은 모자를 썼다’(戴紅帽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음.

은 자식들로 하여금 가업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集體企業으로 위장할 경우 자금 조달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지방 행정 책임자들도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방조하였다. 당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集體企業이 납부한 관리비는 국가가 징수할 조세로 귀속되어야 하나, 위장 기업의 관리비는 지방정부의 계획 외 수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에는 무엇이든지 먼저 자본주의 것인지 사회주의 것인지 묻는 버릇 때문에, 만약 자신이 책임지고 관할하는 지방에 민간부문 경제 비중이 높을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지방관리들도 민간 기업인의 욕구에 부응하여 위장 집계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방조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 증식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사유재산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국유부문에 비해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자본 증식이 빠를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과쯔 생산자가 1984년에 세금만 30여만 위안(10.7만 달러)을 납부했다는 사실에서 자본 증식 속도가 얼마나 빨랐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은 지방 행정책임자의 의식개혁의 정도에 비례하여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지방경제의 발전은 철밥통(鐵飯碗)이 완전히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국유부문의 발전만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행정 책임자가 어느 정도로 민간기업을 인식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이 좌지우지된다. 이 점은 중국 중서부지역의 발전이 느린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 중서부지역의 발전이 안된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1992년부터 대외개방이 시작되어 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방 행정책임자의 의식개혁이 미흡한 데 기인한다.

2. 민간부문의 발전 추세

1997년 중국 공산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민간부문을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천명⁹⁾한 이후 민간부문의 경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9) 제15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민간부문의 지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국유부문의 지위도 강조하였는 바, 국유부문은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산업과 기간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앞으로 국민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여기에는 원유, 천연가스 개발, 우편, 통신 등 정부 독점 산업; 철도, 도시 대중교통, 전력, 코우크스, 상수도, 양곡, 금융, 무역 등 공공 산업; 철강, 석유화학, 첨단기술 등 중요 산업, 특히 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따라 중국 민간부문의 발전 추세도 과거의 소극적인 기업발전 전략에서 적극적인 발전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등 발전 추세가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기업규모의 확장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대형 기업집단을 만들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가 완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업규모의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사업영역을 생산, 무역, 투자, 개발 등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다른 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둘째, 상품구조의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생산에서 벗어나 기술개발, 서비스와 신용을 중시하며, 나아가 상품 브랜드와 기업 이미지 제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셋째, 가족중심의 경영에서 현대적인 기업관리로 경영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다. 넷째, 생필품 생산 위주에서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다섯째,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력의 확보는 물론 경영 및 관리자의 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정부와 국유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된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섯째, 단기 이익추구에서 장기 이익 추구로 기업경영 목표가 바뀌고 있다. 이밖에도 국외진출을 도모하거나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다.

3. 민간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문제

가. 민간기업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

중국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첫째는 기업의 규모로 우열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기업의 규모는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로 귀결되는데 그 자산에 순자산이 얼마인지는 도외시된다. 때문에 단순히 자산규모로만 따지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규모가 커지면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얻고, 이를 이용 다시 기업을 확장하는 악순환을 계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둘째는 맹목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민간 기업인들은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을 단시일내에 대형 그룹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지나치게 강한 데다,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 인식의 변화로 지방행정 책임자들도 어

중 대기업; 군수, 항공우주 등 특수산업이 해당됨. 이러한 산업에 대해 국유기업이 반드시 100% 지분보유를 의미하지 않음. 따라서 민간부문은 첨단기술 등 일부 중요 산업을 포함하여 여타 산업분야의 진출이 가능해짐.

는 정도 방조하는 경향이 가세하여 본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수 개의 분야로 사업진출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의 작성 등은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한 사업에서 100만 위안씩 벌면 10개 사업에 1,000만 위안이라는 다분히 주먹구구식 사업 확장을 주로 한다. 셋째는 단기 이익의 확보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어느 사업의 이익이 괜찮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없으면서도 일단 사업을 벌려 비슷하게 제품을 생산하여 돈을 버는 경향이 많다. 이 때문에 위조품과 불량품이 난무하고 사기, 탈세 등의 현상들이 만연하고 있다.

나. 정부 부문의 과잉 의지

최근 민간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書記, 市長 등의 행정 책임자들이 지역의 주요 민간기업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마치 민간기업의 발전에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판받을까 두려워 하는 것 같다. 지방 행정 책임자의 기업 후견인 역할현상은 현대적인 기업관리 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권력과 금전의 결합에 의한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며, 관련부문의 관리감독 소홀과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권력을 이용한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례로 극히 소수이긴 하나 일부 지방에서는 지방정부의 명의로 민간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관리감독 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면하게 함으로서 경영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는 과잉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민간기업 경영인 자체의 취약성

민간기업인의 거의 대부분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분화된 인사들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을 뿐더러 기업 경영과 관리에 대한 지식과 직업의식이 대체로 낮다. 이들은 대부분 가내공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가족 중심의 경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족경영의 폐단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테면 가족 구성원을 과신하기 때문에 가족 이외의 사람을 등용하지 않고, 규정과 제도보다 情에 얽매이는 경향이 빈번하게 된다. 또한 여전히 가내공업 형태의 생산방식, 느슨한 기업관리, 불비한 규정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민간부문의 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IV. 민간기업의 발전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기업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약 20년의 발전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비로서 수면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민간부문에 대해 부분적이거나 사유재산물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민간기업을 주축으로 한 민간부문의 발전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의 WTO 가입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하에서 민간기업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발전은 국유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개혁개방 이후 허용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할 또한 매우 큼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분이 동부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적었다. 문제는 중서부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데다 수출의무 부과 등 외국인 투자정책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하였다. 물론 최근에 중국이 서부개발을 추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상기의 문제점들이 단시일 내에 개선될 가능성은 적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해 연말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등의 개혁으로 발생한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인기업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자생력이 강한 민간기업을 통해서 중서부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민간부문의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환경이 개선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유효수요의 창출 문제이다. 이는 비단 민간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경제성장 측면과 경제발전에서 어떻게 기업에 유효수요를 창출해주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998년 이후 추진해 오고 있는 국유부문의 개혁으로 실업자가 증대되고, 더불어 종전에 기업이 부담하던 사회보장 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됨에 따른 개인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혁으로 인해 향후 수입을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자율 인하와 주택 및 자동차 구입자금 등의 가계대출을 적극 시행하고 있지만 내수가 진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서부 지역의 경우 실질 소득증가가 GDP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내수 진작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시장경제 체제에 맞추어 어떻게 기업의 재산권(産權)을 민간경제 주

체가 소유하도록 하느냐 이다. 즉, 민간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集體企業으로 위장한 기업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환원시켜주는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민간경제 부문의 재산권 매매의 어려움과 설사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반되는 높은 거래비용으로 거래가 부진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의 매매가 어려운 것은 민간기업들이 지역적 기반을 두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외지인의 경우 지역차별(텃세)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다름 아닌 民官의 결합에 의해 가능했던 부정한 수익원이 차단된다는 점, 그리고 기업주의 변경으로 관리자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 등에서 그 속 뜻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민간기업이 타 지역, 타 업종으로 확대를 어렵게 하여 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관리의 관료주의적인 구습으로 민간기업(외국인투자기업도 마찬가지)이 시장경쟁과 재산권 교역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요소시장에서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민간기업은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에 있어서 국유부문에 비해 우위를 보일 수 있지만 자본시장과 기술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우위가 없다. 직접금융이나 간접금융 시장에서 모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기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간기업이 필요한 기술은 시장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이 무질서한 데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불완전하여 기술 습득이 어려운데 반해 비용과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고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은 중국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1991~97년 기간 동안 단지 총 투자의 15~27%(공식적인 은행 대출의 1%미만)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GDP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높다. 민간부문의 활발한 생산활동과 경제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게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바침이 미흡하여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성장의 한계점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태도가 바뀌지 않은 한 민간기업의 경제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어렵다. WTO 가입 이후 민간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만약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중국은 그 동안 중국 경제성장의 큰 축의 하나였던 민간부문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金周永】

<참고자료>

1. 張卓元, 黃範章, 利廣安主編: 「20年經濟改革回顧與展望」, 中國計劃出版社, 1998.
2. 孫健著: 「中華人民共和國經濟史(1949 - 90年代初)」,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6.
3. “撩開私企的面紗—全國私營企業抽樣調查結果揭曉”, “經濟管理文摘”, 1999. 5.
4. 中央財經領導小組辦公室編: 「中國經濟發展50年大事記(1949-1999)」, 人民出版社, 1999.
5. 北京經濟報, 1999. 2. 7
6. 「中國統計年鑑」 각 연호.
7. <http://www.viewswire.com/> '21 Sep 2000 - China finance: Learning to love the private sector'
8. <http://www.viewswire.com/> '5 oct 2000 - China economy: A growing, but fitful, private sector'
9. “A private affair”, Business China, September 25th 2000.
10. “A fitful evolution”, Business China, October 9th 2000.